



종말의 시대 영적

기도하는 방법

(언약 기도문)

즉각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존다니엘

사역부에서 출간한 다른 책들

1) 순종 (하나님의 권위 통로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2) 끝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경주
(왕위 계승 자격).

3) 장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저작권은 존 다니엘 목사에게 있습니다.
1998년 9월

본문에 인용한 성경 구절은 권위 있는 킹 제임스 성경(KJV)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 이 책의 어떤 부분도 복제, 저장, 복사, 전자화, 녹음 또는 기타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 그들과 함께 여러 번 나가서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서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눅 11:1)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기도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무지한 신자들과 심지어 일부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방언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여전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양한 방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란 단지 사람의 언어나 천사의 언어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새, 동물, 물고기 등도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방언의 다양성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방언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봉납

이 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 메리 블레싱스와 자녀들인 티모시(주니어), 벤자민, 데이비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화해와 도움의 사역에 세우신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하는지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재정적으로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신 저의 절친한 친구이자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된 피터 치에두 이제오마에게 바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용물

1. 슬픔 속에서 자녀를 낳음
그리고 영적인 의미.
2.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3. 기도의 신비
언약을 되새기는 기도.
4. 누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강력한 기도?
5. 하나님의 자녀들은 울부짖어야 하는가?

6. 포효, 심판의 부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
7. 교활한 여자들은 누구이며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8가지 영적 전쟁 기도.
9.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
지금 해야 할 일.

1

아이를 낳다 슬픔과 영성 중요성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일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이전에 이러한 진리를 따르던 시대가 없었던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직전의 마지막 교회 시대인 이 시대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마지막 구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 새롭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교회를 위해 처음부터 행하셨던 대부분의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나타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교회 시대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이전 일들은 이루어졌으니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노라. 그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라고 말하며 이를 예견했습니다.

(이사야 42:9)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옛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 당장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18-19). 이사야가 이전 일들과 새 일이라고 부른 것들은 율법 시대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율법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것들은 새 일이 되었고, 교회 시대가 다가오면서 그것들은 새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낡고 옛적의 것이었던 것이 교회 시대에는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제자들은 그것을 실천했지만, 마귀가 로마인들을 파멸시켰을 때 그것은 다시 낡고 묻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한, 성령께서 진리를 다시 살리지 않으시면 아무도 진리를 물어버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곳으로 다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전도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요, 이미 행해진 것은 앞으로도 행해질 것이니, 해 아래 새것은 없느니라. 무엇이 새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고 우리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전도서 1:9-10)

이것은 설교자의 말씀으로, 해 아래 새것은 없으며 앞으로 있을 일은 이미 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시대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중 이미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설교자는 잠언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일을 밝히는 것은 왕의 영광이니라" (잠언 25:2).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며, 왕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시지만, 성도들은 그 비밀을 찾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비밀의 방 열쇠를 쥐고 계신 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비밀을 감추셨고, 또한 드러내실 분도 바로 그분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새로운 것들을 계시하실 때,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시대의 복음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 즉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자연인과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 어리석게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지식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형제는 이러한 지식주의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던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지혜를 산산이 조각내고 자신을 낮추셨으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경험 후에 성령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디 있느냐? 서기관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변론자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느냐?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설교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 들(신자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 (믿는 자들) 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리스인 (믿지 않는 자들과 지식인들) 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자나 능력 있는 자나 귀족은 많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심지어 없는 것들까지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셨으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0-29)

성령께서 바울 형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것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14). 이는 지식인, 세상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지혜에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행하려면, 그들의 지혜가 산산조각 나고 세상이 어리석은 자로 여기는 사람들 무리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제 책 『순종, 권위의 통로』 참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배우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함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자녀를 낳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낳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라드(yalad)"로, 새끼를 낳다, 출산하다, 기르다, 해산하다, 고통받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 또한 히브리어 "에체브(etseb)"로, 고통, 괴로움, 진통, 고통스러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슬픔 가운데 자녀를 낳다"라는 말은 고통 속에서, 해산하다, 출산하다, 또는 많은 진통 끝에 자녀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자신이 세우신 가장 위대한 제도를 파괴하려 하는 것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사탄과 여자와 남자를 저주하신 데서 유래합니다. 사탄과 여자의 저주는 이러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배로 기어 다니며 평생 흙을 먹으리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여자의 자손은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수리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고통과 임신의 고통을 더하리라. 너는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며, 네 소원은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의 아내가 될 것이며, 그는 당신을 다스릴 것입니다.
(창세기 3:14-16)

사탄이 먹어 온 흙은 흙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살과 피이며, 흙으로 이루어진 동물, 새, 물고기 등의 살과 피이기도 합니다.

우주 창조주의 저주 때문에 여성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없애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안전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울이 말한 "그러나 만일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절제를 지키면 해산의 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딤후 2:15)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사탄이 저주 때문에 항상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해산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어떤 여성도 출산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낳은 자손이 자신을 괴롭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악마는 이를 알고 있기에 여자가 자신을 파멸시킬 씨를 낳도록 내버려 두어 방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여자와 그녀의 씨를 자궁 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짓밟으려 한다.

전 세계 대다수의 신자들은 사탄이 여자와 그녀의 후손을 상대로 벌이는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영적 의미를 지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창세기 3장 15-16절에 나타난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동산의 통치자로 삼으셨을 때,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탄을 폐위시키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여자를 통해 오실 것도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심오한 영적 통찰력을 담고 있는 이유이며,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16절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신성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기 시작한 모든 참된 신자는 여자가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탄의 머리를 부술 첫 번째 씨, 곧 주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여자가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시작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휴거 때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므로, 여자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씨(교회)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무리, 즉 승리자들입니다(요한 계시록 12:5, 11 참조). 이 어린아이 같은 무리와 그 무리에 속하기 위한 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가르침은 제 책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경주 (보좌를 위한 자격)』를 참조하십시오. 사탄의 씨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참된 신자들(교회)은 주님의 신부로 여겨지며, 주님 자신은 신랑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참된 신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영적으로 여성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시온의 딸들만 볼 수 있고, 시온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시온의 아들이 되면 더 이상 신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온의 독생자이시며(하나님의 이름은 시온입니다), 그분은 결혼할 신부를 모으고 계시는데, 그 신부들이 바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이라고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시온의 모든 딸은 여인, 즉 교회를 의미하므로, 시온의 딸의 씨는 무엇일까요? 시온의 딸, 즉 여인의 씨는 주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녀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정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모든 시온의 딸, 즉 참된 신자가 고통과 해산의 아픔을 겪고, 영혼을 괴롭히며, 금식과 기도로 마음을 다잡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부르든 방언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몸과 영혼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마치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에 심한 진통을 겪는 것처럼, 그 그릇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그것들을 풀어내야 하는 큰 부담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방언 기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통은 소리 내어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진통이 곧 기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도 방언으로 기도하든, 깨달음으로 기도하든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새 아기를 낳으려는 임산부는 진통을 겪어야 하며, 그 진통은 소리 내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낳으려는 시온의 딸이 어찌 진통을 소리 내어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법이 자연의 법을 지배하며,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들은 "거듭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다수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교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네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손을 잊겠다.

(호세아 4:6)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것은 진리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점차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오시는 참된 빛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으며, 그 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께서는 권능을 부여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로 많은 아들을 일으키시려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라" (요한복음 1:12-13).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을까요? 사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 뜻대로 태어났다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오랜 교제를 통해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 (롬 8:14)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보다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하게도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인이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종과 같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갈 4:1-2 참조).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일을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자녀 또는 종이라고 부르시며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요한복음 15장 12-15절에서 마지막 계명을 주실 때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를 동여매고 네 뜻대로 걸어 다녔으나 네가 늙으면 네 손을 뻗어야 할 것이요 다른 이는..."

주님께서 너를 단단히 묶으시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나타내신 것이다. (요한복음 21:18-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 베드로가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주님 안에서 갓난아이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는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는 어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뜻대로 행했지만, 나이가 들고(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장성한 아들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주님께 맡기게 될 것이며, 이 구절에서 '다른 분'으로 언급된 성령께서 그(베드로)를 인도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베드로를 위해, 그분은 그가 원하지 않는 일도 행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 방식, 견해, 결정 등을 완전히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행하는 일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기적인 방식을 버리고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도록 맡길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2:20)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지만, 육신으로 사는 삶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자신을 부르신 스승(주 예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들다운 모습이며, 성숙함의 훌륭한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요 1:12-13),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로마 8:14), 영적인 자(고전 2:15),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예비하신 몇몇 인간 그릇을 통해 잉태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잉태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이 사람들과 그들이 어떻게 잉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릇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큰 고통과 임신을 더하여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찾을 것이니, 그 위에 아직 사람이 타 본 적이 없으니, 그 나귀를 풀어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를 풀어 주느냐?’ 하고 묻거든,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그 새끼가 필요하시기 때문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끼를 발견했다. 그들이 어린 양을 풀려고 할 때,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어린 양을 풀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께서 그 새끼가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겼옷을 어린 양 위에 덮고 예수를 그 위에 태웠다. (눅 19:30-35)

영적으로, 당신 맞은편 마을은 어둠의 왕국이며, 아무도 타지 않은 망아지는 어둠의 왕국에 묶여 화개하지 않은 남녀를 의미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묻거든,

사탄이 왜 그를 풀어주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이 어린 말을 풀어준 후 예수님께 데려와서 자기들의 겼옷을 어린 말 위에 덮고 예수님을 그 위에 모셨다는 것은, 그들이 어린 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옷을 입히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께서 그 말을 완전히 소유하시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인용문과 해석 모두에서 밑줄을 그은 것은, 예수님께서 평범한 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풀어준 후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임을 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내신 주님(예수)께서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사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불의 시험을 견뎌내는 경험을 쌓았고, 이 경험 덕분에 어린 양을 풀어 주려고 애쓰는 동안 마귀가 가하는 어떤 환란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고(즉,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어린 양을 풀어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며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라. 이제 네가 성읍을 떠나 들판에 거하며 바벨론까지 갈 것이니 거기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미가 4:10). 시온의 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 히브리서 13:13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경고, 곧 “그러므로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모욕을 대신 받들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종교를 지배하는 세상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나의 저서 『그리스도의 경주: 끝까지(보좌를 위한 자격)』와 『장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 참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 고통을 멈출 수 없다. 그들은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태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고통.

해산의 고통이 오기 전에 그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이런 일을 들었으며 누가 이런 일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 만에 소출을 내겠느냐? 한 민족이 단번에 생겨나겠느냐? 시온이 해산의 고통을 겪자마자 그 아이들을 낳았도다. (이사야 66:7-8)

이 장소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영적인 의미이고 둘째는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시온의 딸들이 모두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아들, 곧 승리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로 삼으시려 하신 사람들 중 일부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일부는 회심했지만 아직 진영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회심했지만 분리된 자들은 각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아직 어둠의 왕국에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데 일시적인 지연이 있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문자적인 의미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항복하고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산의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기 시작할 때, 그들의 메시아가 천상의 군대와 함께 나타나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들은 그분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탄생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본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임신하여 해산의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아이를 낳으려 애썼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쇠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자였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그의 보좌로 올려졌다 (요한계시록 12:1-2,5).

이 여인은 현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히브리서 12:23 참조)와 세상의 종교 체계와 완전히 분리된 시온의 딸들, 그리고 과도 교회라고 불리는 일부 보편적 신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구원받은 남녀들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열두 별로 된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데, 면류관은 왕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고 열두 별은 신성한 권능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구원받은 이 남녀들이 왕이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신성한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교회)은 영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잉태되어 있다가 마침내 출산하여 고통스러운 해산을 통해 모든 나라를 쇠막대기(즉, 성령의 거역할 수 없는 권능)로 다스릴 남자 아이(즉, 승리자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를 낳기 시작할 것입니다.

철없는 남자가 얽히게 되면 여자는 곧바로

결국 남은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 분리될 보편적 신자들뿐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고통스럽게 사역하며 그들이 회심하도록 애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새겨지도록(즉, 그들이 성숙한 아들로써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애썼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그리스도(하나님의 말씀)가 너희 안에 형성될 때까지니라 (갈라디아서 4:19).

그러므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숙한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16장 21절에서 여인의 해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곧 해산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기에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순간, 세상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를 낳도록 맡기신 시온의 딸들이 해산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온 세상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롬 8:19, 21 참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시온의 딸들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큰 슬픔을 겪으며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시는 모든 것, 즉 영적인 것, 재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결혼 생활, 건강 등 모든 것은 해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잉태하거나 임신하여 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도의 신비 언약을 되새기는 기도

'비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무스테리온(musterion)'에서 유래했으며, '비밀'을 의미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이 단어는 원인이나 기원이 감춰져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헌신적인 제자라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상기시키는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리고 반응하실 때 무엇을 하시는지입니다. 우리가 말세의 영적인 기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포효하고, 심지어 방언을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언약을 상기시키는 기도로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자손이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을 섬길 것이며, 그들이 섬길 민족이 사백 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민족에게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백성을 다스린 후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섬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요청으로 이집트로 피난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과 이집트 왕이 모두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를 움직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이실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집트 왕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굶어보시고 돌보셨다. (출애굽기 2:23-25)

한숨이란 무엇일까요? 한숨은 히브리어 단어 '아나(anah)'로, '아나'라고 발음하며, 신음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한숨은 (슬픔, 피로, 안도감 등을 나타내며) 들릴 정도로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신음은 고통으로 인해 억지로 내뿜는 깊은 소리이거나 절망이나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 생활로 인해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극심한 괴로움이나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인들의 손(즉, 세상 또는 육체). 그리고 네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소리를 들으셨다

(b)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적으로는 사랑과 의의 언약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과 맺으신 언약과 동일합니다.

(c)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굶어보셨다

(d)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이 이 육신이 여러분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속박에 묶어두어 사랑과 의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며 탄식하고 울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 네 가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관들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고 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고 그 땅 (어둠의 왕국 또는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넓고 좋은 땅 (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곳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페레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사는 곳이다." (출애굽기 3:7)

8)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자기 백성의 고난을 보았으니, 그들을 그 땅(어둠의 왕국, 육신, 세상)에서 건져내어 풍요롭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좋은 땅(하나님의 왕국, 영혼의 몸,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내려왔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이 나그네였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느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며 내 팔을 펴고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출애굽기 6:2-8)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졌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족장들이 여호와라고 불렀던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으며, 순례의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세상, 곧 육신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열여섯 가지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이름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열여섯 가지 비밀 중 일곱 가지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깎여 나온 반석(예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를 때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이사야 51:1-2 참조).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실 때, 여호와라는 복합 이름에 담긴 열여섯 가지 비밀 중 일곱 가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 체계에서 숫자 7은 완전함 또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상기하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일곱 가지 뜻은, 진심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참된 제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의지의 신비

하나님

(a)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는 여호와 삼마시니라.

'맥주'라는 뜻의 이 단어는 에스겔 48장 3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 있는 것은 너희를 이집트(세상 또는 육신)의 집에서 진정으로 해방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b)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분은 여호와 살롬이라 불리시며, 이는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세상 또는 육신)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너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뜻이다.

(c) 내가 팔을 뻗어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분은 여호와 라아(JEHOVAH RAAH)로 불리며 사편 23편 1절에 나오는데, 이는 주님께서 사탄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 그들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원하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미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이유입니다.

(d)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오면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뜻입니다(히브리서 4장 16절 참조).

(e)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 구원해 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이며,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 또는 주님은 나의 깃발(승리)이시다는 뜻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나 승리자 그 이상입니다.

- (f)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 하나님은 여호와 치드케누(Jehovah Tsidkenu)로 불리며 예레미야 23장 6절에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와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땅이 의의 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은혜, 즉 선물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우리의 모든 죄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동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의로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네게 기증으로 주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분은 여호와 라파이시며, 이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의 신성한 치유자 또는 의사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번 치유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자이신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병들지 않을 것이며, 설령 마귀가 질병으로 공격해 올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즉시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음하고 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일곱 가지 뜻, 즉 열여섯 가지 여호와 이름 중 일곱 가지를 나타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은 교회가 알지 못했던 큰 비밀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일곱 가지 위대한 뜻을 알았다더라면, 교회는 간절히 탄식하며 항상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쇠약해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잠시 동안의 가벼운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16-18)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고난은 신음, 해산, 통곡, 울부짖음, 울부짖음, 포효하는 등의 영적인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 육신으로 겪는 박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물리적인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땅과 함께 소멸될 것이므로 일시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므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으셨으나 하늘에 영원히 계시는 그 집이로다. 우리가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니라. 옷 입으면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장막 안에 있으면서 탄식하는 것은 무거운 짐 때문이니라. 우리가 벗기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는 필멸의 몸이 생명으로 삼켜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지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1-5)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우리의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손으로 만들지 않고 살과 뼈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집(영혼의 몸)이 하늘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탄식하며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의 옷을 입으면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장막에서 탄식하는 이유는 육신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곧 영혼의 몸으로 옷 입으면 이 육신에 선포된 사망이 생명으로 충만한 영혼의 몸에 의해 제압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동일한 저주 아래 두셨으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신음할 때 도움을 주시는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귀가 먹었고 말도 서툰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그의 귀머거리를 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를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숨 쉬고 (신음하며) 예수께 "에프파타, 곧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막힌 줄이 풀려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 7:32-35) 예수께서 탄식하시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던 귀머거리와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셨고,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셨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즉시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탄식하는 것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기침이나 감기로 고생할 때 탄식해 보면 그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약을 사지 않고도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표적을 보여 달라고 질문하며 그를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막 8:11-12)

예수님은 자신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려는 악령들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신음하셨습니다. 이는 신음하는 행위가 미리 계획하거나 의도한 악한 생각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와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사도행전 7:34)

신음은 즉각적인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내가 신음할수록 더 많이 구원받고, 더 많이 신음할수록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임하게 됩니다. 나는 내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내 귀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성음을 맡은 자들을 모두 가까이 오게 하라. 각자 손에 파괴할 무기를 들고 오게 하라."

보라, 북쪽 높은 문에서 여섯 사람이 왔는데, 각자 손에 살육용 무기를 들고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필기구를 차고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늦 제단 곁에 섰다. 그때 그 위에 있던 그룹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턱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옆구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한가운데로 가서, 그 가운데서 행하지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듣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으로 가서 처라. 너희는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늙은이와 젊은이, 처녀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여라."

여자들은 그러하되 표식이 있는 남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 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던 노인들부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전을 더럽히고 뜰에 시체를 가득 채우라.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에스겔 9:1-7)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서기관이 먹통을 가지고 그 성읍(신자들의 진영)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의 가증한 일이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의 이마(마음)에 표 또는 인장을 찍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든 다른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장을 찍으러 보낸 첫 번째 천사를 따라 그 성읍, 곧 신자들의 진영으로 가서, 교회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를 찾지 못하면 젊은이와 노인, 어린아이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여라. 그러나 탄식하고 우는 자로 표를 받은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나아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오래되고 높은 직책을 맡은 자들부터 먼저 파괴 또는 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조)

(1Pet.4:17-18).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일곱째 날, 즉 천년왕국이 가까워질수록 그 강도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일곱째 날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과 그들의 성도들이 심각하게 탄식하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그리스도 온 몸의 죄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음하며 울부짖는 자들은 인침을 받고, 성령의 불세례가 부어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얻을 때까지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4

누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강력한 기도?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비교하고 균형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 모두 풍부했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계시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허무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의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복종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나 소망 가운데서 피조물도 썩음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리니 이는 온 피조물이 지금껏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뜻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롬 8:18-27).

하나님께서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교회와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에게 내릴 늦은 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 온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밀줄을 그은 것은,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직간접적으로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포효하고, 방언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의미 있는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으뜸인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지도자(인간)를 위해 효과적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인간)는 구원받는 즉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창조된 모든 것은 동일한 중보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인간이 구원받을 때, 그들(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창조물을 부패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동일한 영광스러운 행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 사탄과 그의 어둠의 하수인들이 방해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심으로써, 성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 기도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 신음하시는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드리는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9:31)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잠언 15:8)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의 기도조차도 가장
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잠언 28:9)

이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을 증명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
서 인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며 우리 죄를 위한 합당한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당신의 기도를 거
부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과는 소통하지 않으십
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참조)

요한복음 10:9, 역대기 14:6).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후 드
린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하
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즉, 축복이나 기쁨 부음이 없게 하거
나), 메뚜기 떼를 보내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악령들이 그들의 그릇을
파괴하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더라도, 내 이름으로 불
리는 내 백성이 겸손히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키면 내
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역
대기 7:13)

14).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그
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널리 공언되는 기독교 세계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거나(제 책 『그리스도인의 종말을 향한 경주: 보좌에 대한 자격』 참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많은 신자들은 기도 응답을 즉시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혀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줘도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주님과 그분의 사역에 깊이 관여했던 같은 부모를 둔 두 자매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이르러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에 예수를 영접하였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마리아도 예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여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제 언니가 저를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었는데도 개의치 않으십니까? 그러니 마리아에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으니,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눅 10:38)

42).

이 이야기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두 자매의 이야기로, 영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두 종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 걱정했을 뿐 아니라, 동생 마리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더 즐기는 모습에 염려했습니다.

마르다는 주 예수님께 마리아를 불러 자신과 함께 섬기도록 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녀의 끊임없는 불평과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로 선택한 마리아에게서는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영에 있는 대다수 신자들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온의 딸들을 향해 bitterly 불평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마르다를 상징하는 이 신자들은 전도 집회, 전도 활동, 세미나, 부흥회 등 온갖 프로그램에 바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 시간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듣기 위해 시간을 쏟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상징하는 시온의 딸들이 행하는 좋은 몫을 칭찬하셨고, 그 몫은 결코 빼앗길 수 없을 것입니다.

메리가 유명했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를 위해 저녁 식사를 차려 주었고,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 한 파운드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니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때 예수를 배반할 시몬의 아들 유다이스카리옷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가 내 장례를 위해 이 향유를 간직해 두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2:2-7)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전해져서 그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12-13)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에 대해 말씀하신 교훈을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잘못을 인정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과 더욱 견고한 관계를 맺어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주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 한 파운드를 주님의 발에 발랐는데, 이는 그녀가 값비싼 사랑을 주님께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영광(머리카락은 여성의 영광입니다)을 주님께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사랑과 순종을 바쳤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신실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그분의 시련을 함께 견뎌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교회의 기둥이라 여겨지던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쳤을 때에도 주님께 대한 사랑을 죽음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이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남편이나 권위자를 통해 주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여성들의 사랑과 헌신 또한 기념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과 맺었던 견고한 관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간청과 기도는 마르다의 간청과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가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저는 당신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는 길을 가다가 몰래 동생 마리아를 불러 "주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셨으나 마르다가 예수를 만났던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때 집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마르다를 위로하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며 “저 여자는 무덤에 가서 울려고 가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그분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어찌 이 사람만은 죽지 않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신음하시며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돌이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라."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죽은 자가 누워 있던 곳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한복음 11:19-43)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기도에는 어떻게 무관심하게 귀 기울이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했지만, 이는 그녀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거짓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훨씬 나중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선한 길을 택한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 복종하는 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한 모든 말이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그녀가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을 믿는 거짓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참 예배자인 마리아는 오직 초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레마(진리)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초대받지 않고 주님께 나아간 마르다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마리아는 레마를 받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마르다가 이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하며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주님께 자신의 간구를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 탄식하며 눈물 흘리시면서 무덤으로 나아가 기적을 행하시고 참된 예배자 마리아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셨다는 유대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마리아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며 탄식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탄식과 울음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언약을 상기시켜 드렸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르가 항상 신음하고 우는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녀들이 사랑 안에서(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시며 나사로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내가 신음하며 괴로워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침상을 흥뻑 적셨도다. 내 눈은 슬픔으로 쇠약해졌고 모든 원수들 때문에 늘어버렸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6:6-9) 악을 행하는 자들이 떠나갈 것이다.

내가 신음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기도에 방해가 되는 악령들을 쫓아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나 죄인, 심지어 의롭게 행하지 않는 신자들조차 내 주위를 맴돌며 나를 괴롭히고, 내 안에서 주님의 삶을 통해 아직 회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볼 때, 나는 진정으로 신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기에 쓴 내용을 보면, 구약 시대 성도들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탄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큰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무의식적으로 받을 때에만 탄식할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장에서 계시하신 바는 인간이든 아니든 모든 피조물이 이러한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저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경주: 보좌에 대한 자격』 참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마리아처럼 행하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울부짖을 거라고 예상했나요 ?

울부짖는 것으로 유명한 동물은 늑대입니다. 늑대는 곤경에 처했을 때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울부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울부짖음에 대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울부짖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울부짖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울부짖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가능한 한 많이 울부짖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이십니다. 울부짖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발'(yabal)인데, 이는 고통, 흥분, 공포 등으로 길게 크게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 흥분 속에서 울부짖는 것, 공포나 위험 속에서 울부짖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 장에서 더 많은 사실들을 계시해 주실 때마다 각각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 으뜸인 인간이 그분께 죄를 지었을 때, 온 창조 세계는 누리던 행복을 잃고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는 그들의 우두머리이자 친구였던 인간이 더 이상 통치권을 쥐고 있지 않고, 무시무시한 원수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온 창조 세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계속될 고통 속에서 우주의 창조주께 개입하셔서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사탄의 고통스러운 통치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동물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들 중에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10)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모든 소리를 통해 기도하고, 창조물을 부패의 속박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실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고통, 흥분, 공포 또는 위험을 표현하며 울부짖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은 늑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 계실 때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울부짖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멜기세덱은 육신으로 살던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간절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두려워하셨습니다. 비록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6-8)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며, 그분께서 하나님께 간절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드린 기도와 간구는 끊임없는 절규였습니다. 그분께서 두려워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우기 위해 육신으로 큰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대다수는 그리스도인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 육신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으므로 육신으로 어떤 고난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그분과 함께 고난받기로 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육신에 대한 심판과 정죄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모든 사람은 죽거나, 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아 영혼의 몸을 속죄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내가 너희 영혼을 속죄하기 위하여 제단 위에 피를 주었으니 이는 피가 영혼을 속죄하는 것이니라

(레위기 17:11) 육신에는 피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제단 위에서 영혼의 몸을 속죄하는 데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육신의 피를 빨아들여도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흐르는 육신은 영혼의 몸을 구원하기 위한 대가로 사용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울부짖는 것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한 방식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 번 울부짖으셨듯이, 우리도 이제 기도의 형태로 예수님께 가능한 한 많이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죽음(즉, 영적인 죽음 또는 영혼의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아, 통곡하며 부르짖으라. 양 떼의 우두머리들아, 재 속에 몸을 던지라. 너희가 도살당하고 흠여질 날이 이르렀으니, 너희는 아름다운 그릇처럼 무너질 것이다. (렘 25:34)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재앙을 생각하며 울부짖으라. (야고보서 5:1)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의 영광이 망가졌음이라 (스가랴 11:3).

이 구절들은 주님께 반역해 온 사람들에게 닥칠 심판 때문에 통곡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확정된 뜻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으므로,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회심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통곡하라! 여호와와 그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 날은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과 같을 것이다 (이사야 13:6).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고, 나팔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져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 58:1).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온 땅의 주민들이 떨게 하라. 여호와와 그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까이 왔다.

(요엘 2:1)

이러한 울부짖음은 마치 경고 신호처럼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와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많은 이들이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울부짖음은 또한 다가올 위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읍에서 비정상적인 울부짖음이 들리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읍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성읍에 재앙이 닥치면 여호와께서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모스 3:6) 여기서 나팔은 마치 큰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그러한 울부짖음이 들리면 성읍에는 큰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혼비백산하여 뛰어다니게 됩니다.

술 취한 자들아, 깨어나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모두 울부짖으라! 새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요엘 1:5).

제사장들아, 허리를 동여매고 통곡하라. 제단의 봉사자들아, 울부짖으라. 내 하나님의 종들아, 와서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워 있으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소제와 전제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니라 (요엘 1:13).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하는 통곡입니다. 새 포도주

이는 새로운 기름부음 또는 새로운 영을 상징합니다. 초기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 포도주 축제, 새 소제 축제, 오순절 축제를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사도 행전 2장 12-15절에서, 초기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온 사람들은 그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던 축제가 새 포도주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재빨리 그들에게 자신과 동료들은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오전 9시, 즉 세 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 요엘을 통해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1장의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새 포도주를 끊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새로운 기름부음을 맛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고기 제물과 음료 제물은 또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계시, 그리고 성령의 참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들에게 영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통곡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움직여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요엘 2장 23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제물과 음료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밤낮으로 금식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곡은 신음하고 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더 이상의 형벌이나 고통에서 구원하시도록 하는 효과를 냅니다.

결론적으로,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신 차리라는 경고 신호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기쁨에 겨워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6

포효하는, 심판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과정의 일부

논쟁의 여지 없이, 포효하는 소리를 알거나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악령을 물리치는 기도에 있어서 포효보다 더 효과적인 심판의 방법은 없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오신다면 잠시 멈춰서 천둥이 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목상해 보십시오. 또는 해변에 가서 파도가 포효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파도에 휩쓸리기도 전에 필사적으로 도망치는지 보십시오. 동물원에 가거나 텔레비전을 통해 동물 왕국을 탐험해 보면 사자가 포효할 때마다 다른 동물들이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몸을 통해 활동하는 악령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 거룩한 몸을 통해 포효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주할 때 떨어져 도망칠 것입니다. 포효는 히브리어로 '셰아가 (sheagah)'이며, '셰아가'라고 발음하는데, 이는 웅얼거림이나 신음 소리를 의미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럼블링'이란 천둥이나 총소리처럼 깊고 무겁고 지속적인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는, 어떤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령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방법으로서의 포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포효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능력이 그 악령들을 그 몸에서 쫓아내거나, 그 몸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포효하시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음성을 발하시리니, 그의 처소에서 큰 소리로 포효하시며 포도 밟는 자들처럼 온 땅의 주민들을 향하여 외치시리라. (예레미야 1:12)

25:30).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포효하시며 거룩한 처소에서 음성을 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인 그분의 거룩한 그릇들(즉, 주님께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 포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포효하실 때, 그분의 기름 부음의 능력은 땅의 모든 거민들(즉, 우리 안에 거하는 악령이나 우리를 고발하고 공격하는 자들의 안에 거하는 악령들)을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잡은 동물을 짓밟듯이 짓밟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고 모든 나라를 흔들리니 모든 나라의 소망이 내게로 올 것이며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중 성전은 이전 성전보다 더 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서 평화를 주리라 하시니라 (학개 2:6-9)

그때 그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 그는 다시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도 흔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시 한 번"이라는 말씀은 흔들리는 것들, 곧 지체된 것들이 제거되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26-27)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의 그릇들을 통해 포효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하늘(성령으로 행하는 믿는 자들), 땅(육신으로 행하는 믿는 자들), 바다(나라들과 어둠의 왕국), 그리고 육지(불신자들을) 흔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포효를 통해 모든 나라(모든 그릇들)를 흔들 것이며, 그분이 흔드시는 이 백성의 소망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에게 복을 부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흔드시는 이 백성의 소망이 주님께 이르면,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영광을 받은 자기 백성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은 주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백성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분은 은과 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은은 구원을, 금은 그분의 영광 또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주님께서 액체를 통해 구원하시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 곧 그분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이 이전 때보다 더 클 것이며,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의 군대에 게 그분의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불멸의 의의 옷이며, 이 마지막 때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액체 불, 즉 늦은 비를 받는 즉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 옷을 입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 제자들은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포효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모든 것을 갈라지게 하고 제거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며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시니 하늘 (믿는 자들) 과 땅 (믿지 않는 자들) 이 흔들릴 것이나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소망이시요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시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요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요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어 다시는 이방인 (귀신) 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 (요엘 3:16-17)

하나님의 영이 구별된 자들의 그릇에서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의롭게 행하지 않는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백성의 소망이시며 그의 자녀들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구별된 그릇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악령도 그들의 몸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자(악령)들이 여전히 그들의 몸을 통과하는 한,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령들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우리를 더럽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늦은 비는 필멸의 몸을 불멸의 몸으로 삼키고, 육체를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육체의 평화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사흘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였으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지니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이 떨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진영에서 나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아래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산에 내려오시니 온 산이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그 연기는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치솟았고, 온 산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며 점점 커지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16-19)

이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포효하셨을 때 진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상황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산조차 흔들렸는데, 이는 그 당시 그곳에 있던 평범한 인간들이 어떤 심정을 느꼈을지 짐작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앞에 드러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광경과 소리를 보고 그들은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반역과 불순종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크게 두려워하여, 과거에 여러 번 모욕했던 모세의 말을 듣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해 강렬하게 말씀하실 때, 이는 원수로부터 오는 임박한 위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도구를 통해 위험이나 공격을 가져오는 악령들은 도망칠 것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산이 흔들리듯 떨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목숨을 걸고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나아가시며 전쟁하는 용사처럼 질투를 일으키시며 외치시고 포효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이기시리라.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고 가만히 있었으며 자제해 왔지만, 이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며 모든 원수들을 한꺼번에 멸하고 삼키리라 (이사야 42:13-14). 주님께서는 전쟁하는 용사처럼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처소에서 부르짖고 포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고 원수들을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며 모든 원수들을 한꺼번에 멸하고 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포효하는 것과 같은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지만, 그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원수들을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그가 사자처럼 포효하시리니 그가 포효하실 때에 자녀들이 서쪽에서 떨리라 (호세아 11:10).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처소, 곧 우리의 거룩한 그릇 안에서 사자처럼 포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포효하시기 시작하면 그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떨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서쪽으로 모일 것입니다. 이 구절과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 그분의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셨지만,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서쪽으로 그들을 모아 그분의 아들들, 즉 그분의 군대가 나타나도록 액체 불을 부어주시므로써 그분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며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들의 거처가 슬퍼하며 (중재하며) 갈멜 산꼭대기 (곧 우상을 숭배하는 산들) 가 시들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1:2).

하나님의 영이 시온(광야 또는 골방)에 있는 그분의 거룩한 자들의 그릇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목자들(사역자들)의 거처는 간절한 중보기도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산들은 말라붙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효를 기도의 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포효란 무엇이며 어떻게 포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 봅시다.

이러한 방식과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갖게 될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수의 하수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진정한 심판의 기도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 포효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하는 일에 대한 예는 너무나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1년, 우리가 아직 훈련 중일 때, 나이지리아 에누구 에메네 아크푸오가 농장에 있는 제 아내와 몇몇 형제들이 살고 있던 집에 무장 강도들이 침입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그 집의 세입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큰 소리로 포효했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강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인근의 다른 집으로 가서 그 집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다른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사자가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행동이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듯이, 비슷한 상황이나 다른 위험한 일에 직면했을 때 누구든 똑같이 행동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니까요.

7

교활한 여자들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

'교활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활함을 부정적으로 보고, 단순히 속이는 데 능숙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활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활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차캄'(chakam, 발음은 '카우-카운')은 '지혜로운 (즉, 총명하고, 능숙하고, 교묘한)', '교활한', '간교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 교활한 여인들을 불러오라" 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는 교활함과는 전혀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각하고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오게 하고, 지혜로운 여인들을 불러 오게 하라. 그들이 속히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시온에서 애곡 소리가 들리니 우리가 어찌 망했는지! 우리가 심히 당황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살던 곳이 우리를 내쫓았으므로 우리는 그 땅을 버렸다.
그러나 여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담아듣고, 너희 딸들에게는 애곡을, 각자는 이웃에게는 애통을 가르치
라.

(렘 9:17-20)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여인들(즉, 훌륭한 중보자이거나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법을 아는 그릇들)을 찾고 계신
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교회를 위해 애통하며 울부짖을 수 있
는 자들로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고 온 회중도 함께 애
통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세상 제도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들
에게 어떻게 애통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끌
어당겨야 하는지를 가르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장의 핵심 질문인 "교
묘한 여인들은 누구인가?"로 돌아가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성경 구
절에서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묘한 여인들은 바
로 애통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통하
는 여인들이란 육체적으로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
는 데 온전히 헌신하고, 훌륭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이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사람들에게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아는 남녀노
소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들의 통곡과 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회에서 그들의 역할
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실 때마다, 그들은 종종 자비와 중보기도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롭고 영리하게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들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그들이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부음, 즉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성벽을 쌓고 나를 위해 그 땅을 지켜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할 사람을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었고, 나의 분노의 불로 그들을 태워 버렸으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갠노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에스겔 22:30-31)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 중보할 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도록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중보자를 찾지 못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도 중보기도자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애곡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아는 교활하고 능숙한 중보기도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부족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많은 교단과 사역 단체들이 이 부족한 부분을 이해한다고 믿고, 기도 용사나 중보기도단을 조직하는 등 육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 애도의 자리를 대신할 단체 또는 팀.
그들의 의도는 좋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맡으려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직분을 수행할 기름부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제 책 『그리스도인의 경주, 보좌의 자격』 참조), 이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통곡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울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형제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생각하노니 내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힘쓰라" (디모데후서 1:6)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또한 다양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름부음, 즉 은

사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 외에도 신음, 울음, 해산, 통곡, 포효, 울부짖음 등 다양한 방언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소리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이러한 영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성령께 일깨워줌으로써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나옵니다. 신음, 해산, 울음과 마찬가지로 통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통곡이란 무엇일까요? 통곡은 히브리어로 네히(Nehiy)이며, 네히라고 발음하는데, 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슬픔, 큰 비탄, 후회를 드러내거나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날카로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하는 사람의 애절한 외침을 애도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방법과 시기를 잘 알고, 마음속 소원을 이룬 교활한 여인의 예입니다(사무엘상 1:1-20 참조).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교활한 여인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너희 죄를 속죄하리라." 모세가 주님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은 자는 내가 내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 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할 것이다. (출애굽기 32:30-34)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신의 교활한 방법을 확신했고,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지위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를 존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날에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죄를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 자신이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모세처럼 그분의 행동을 막을 다른 사람이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드린 것은 이와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노엽게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을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너로 말미암아 그들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것이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해 내셨음에 따라) 그들이 이 땅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주께서 얼굴을 마주 보시고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시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가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 아니라 만일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처럼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나라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백성을 그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셨다고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여호와와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크시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내 주님의 권능이 크게 하소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법은 없으며,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 삼사 대까지 벌하시는 법입니다. 주의 크신 자비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께서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셨듯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하였노라.” 하셨다 (민수기 14:11-20).

제가 이 부분들을 맡을 친 이유는, 이 위대하고 지혜로운 중재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한 결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상기시켰던 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인들과 주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크게 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동정심을 느끼시며 "네 말대로 내가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애통한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악한 계획을 철회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거리에서 통곡 소리가 들릴 것이며 모든 큰길에서 사람들이 "슬프다! 슬프다!" 하고 외칠 것이며 농부들(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애곡하게 하고 애곡에 능숙한 자들을 불러 통곡하게 할 것이다. 모든 포도원(교회)에서도 통곡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 5:16-17)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과 애곡에 능숙한 자들이 중보기도에 나서게 될 것이며, 거리와 대로에서 통곡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이 주님께 애통하는 부르짖음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 곧 모든 그릇들이 그분께서 지나가실 때 통곡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모든 교회의 애통하는 부르짖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의 유력한 예는 바로 그들의 중보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기업이 이방인에게 욕되게 하지 마소서. 이방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지 마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요엘 2:17)

18).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하며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의 탄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들에게로 돌리기 위해 가슴 아픈 방법이나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위태롭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비웃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멈추게 하고 그분께서 서둘러 행동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다윗은 또한 교활한 여자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는 사무엘하 24:1-19과 역대기상 21:1-18에서 그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다윗은 악마에게 속아 요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게 한 동기와, 출애굽기 30장 11-16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요압에게 계수된 모든 사람에게서 성소의 세겔당 반 세겔씩을 거두어 가라고 명령하지 못한 그의 무능력 모두에 관한 것이다.

다윗의 동기는 자신의 군대의 수와 전력을 알고 싶었던 것이었고,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보다 인간의 능력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윗은 이 실수를 깨닫고 회개 했지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보고 또다시 애곡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예루살렘 위로 뻗고 있었다.

그러자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한 것이 내가 아닙니까? 참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은 나입니다. 그러나 이 양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이 나와 내 조상의 집에 임하시고 내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역대기상 21:16-17)

다윗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훌륭한 중보자로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신과 조상의 집을 벌해달라고 애동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슬픔에 잠긴 여인에게 기대되는 매우 훌륭하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아버지 때문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다윗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가족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대신 자신과 조상의 집안을 벌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에게 그들을 위한 속죄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지혜로운 여인은 오늘날 교단 내 중보기도단들이 그러하듯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가족과 교회의 안녕만을 위해 기도하며,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내버려 둡니다. 지혜로운 여인, 즉 중보기도자는 자신이 기도하는 이웃이나 그들이 겪는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8

영적 전쟁 기도

기도에 대한 길고 아름다운 가르침 후에 영적 전쟁 기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이나 해산 등을 어려서든 것으로 여기듯이, 영적 전쟁 기도도 어려서든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들조차도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면 경호원을 고용하거나 총을 들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교회에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할 지라도 육신의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용맹은 육신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여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10:3-5).

이 성경 구절은 이를 더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과 싸우도록 주신 무기는 경비원이나 총과 같은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 원수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장에서는 전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쟁 그 자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쟁은 무기, 전략, 전술을 사용하는 전투 기술 또는 지식입니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strateuomai'(스트라테우오마이, 발음은 스트라테우오마이)에서 유래했으며, 군사 작전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유적으로는 (힘든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며) 사도직을 수행하고, 육체적 욕망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손, 머리, 다리, 몸을 구부리거나 굽히는 동작은 마치 가라테 수련이나 시합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라테처럼 싸우면서도 아무도 또는 아무것도 때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가라테를 수련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훈련이나 학습 단계에서 아무도 또는 아무것도 때리지 않지만, 손, 다리, 심지어 몸까지 허공에 휘둘러 마치 무언가를 치는 것처럼, 또는 자기 방어의 형태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가라테라는 이 무술을 들은 사탄이 영의 법칙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 땅과 인간이 창조되기 수백만 년 전부터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둘째 하늘에 있으며, 자신의 악령들을 통해 인류에게 가라테라는 형태로 소개한 이 영적 전쟁 체계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모방하여 육적인 방식으로 인류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성경적 설명이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지식인들이 묻고 싶어 할 만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베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쓰게 하심으로써 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엡 6:11-12)

신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바다의 영, 음행의 영, 간음의 영,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시기 of 영, 원한의 영, 죽음의 영, 폭력의 영, 두려움의 영, 마술의 영, 악령 등과 싸우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헛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들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며, 진지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 의에 빠진 불신자들조차 이러한 작은 악령들의 영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싸움, 즉 영적 전쟁은 사탄과 그의 하늘에 거하는 권세들과 그의 세력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지배하는 어두운 곳들이 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사탄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보내진 악한 어둠의 천사들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동물, 물고기, 새의 몸에 깃든 육체 없는 악령들을 조종하며, 하늘에서 이 악령들의 행동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을 처리하지 않고 작은 악령들만 쫓아내면, 주인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더 많은 악령들을 다시 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대륙, 세계 여러 나라, 도시, 마을, 촌락, 유엔,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 유럽 경제 공동체 (EEC),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 등의 국제기구, 국가 원수, 대양, 바다, 강, 행성 계, 종교 단체 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의 말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이 활동하는 일곱 왕국이 있으며, 이 왕국들은 그의 권세들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국들 안에서 사탄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다양한 악한 활동을 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왕국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 구절을 통해 이 왕국들에 대한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나타났으니, 보라, 머리가 일곱 개와 뿔이 열 개 달린 크고 붉은 용이 그 머리들에 일곱 왕관을 쓰고 있더라 (요한계시록 12:3).

하늘의 놀라운 일은 사탄과 그의 어둠의 하수인들이 활동하는 둘째 하늘을 가리킵니다. 붉은 용은 전쟁의 본성을 지닌 사탄을 상징하는데,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 이는 사탄이 전쟁 등을 통해 흘리는 인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일곱 머리는 바티칸 시국이 위치한 바티칸 언덕의 일곱 곳을 가리킵니다(요한계시록 17:9 참조). 이곳은 사탄이 오랫동안 이 세상의 종교 단체들을 지배해 왔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열 뿔은 현재 유럽 연합에 속한 열 개의 유럽 국가들을 나타내며, 이들은 나중에 연방 국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왕관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활동하는 일곱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세들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이며,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지배할 것이며,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됨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의 교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는 이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3:9-10)

이제 여러분은 하늘에 거하는 이 권세들과 세력들을 둘러싼 비밀들이 세상 창조부터 감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감추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셨고, 왜 감추셨을까요? 그것은 인류가 지식을 갈망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감히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과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를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이는 불신자나 죄 가운데 사는 신자들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최악된 삶으로 사탄과 그의 권세들과 싸우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폐위시키고, 인간이 물려받은 아담의 최악된 본성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꾸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사들여졌으니"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제 그녀는 이러한 정사와 권세들을 알고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는 적이 모르는 적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적은 제어할 수 있지만, 모르는 적은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 당신을 감시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가르침에 집중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욥기 41장과 이사야 27장 1절에 나오는 레비아탄의 권세가 있고, 구약 시대에 활동했고 요한계시록 2장 20-23절에 언급된 것처럼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세벨의 영이 있으며, 바리새인들을 통해 활동했고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영이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가인의 영도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지금 많은 신자들이 형제자매를 배신하고, 형제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영의 영향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영의 영향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신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합니다. 그들은 방랑자가 되어 이 교파에서 저 교파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서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돌아다니며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형제자매와 맺은 형제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 언약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며, 언약을 어기는 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는 음행의 영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영적, 육체적 음행, 간음 등으로 이끕니다.

그 수가 너무 많지만, 이것들은 여러분이 모든 권세와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접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편 기자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내 손을 전쟁에 능숙하게 하셨으니, 내 팔로 강철 활을 부러뜨릴 수 있게 하셨도다 (시편 18:34).

내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내 손으로 전쟁을, 내 손가락으로 싸움을 가르치셨도다 (시편 144:1).

강철 활은 권세와 세력을 상징하며,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싸우고 손가락으로 공중에서 가라테를 하듯이 싸울 때, 나는 인간 안에 거하는 육신 없는 영들을 지배하는 권세와 세력의 속박과 조종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 작은 악령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칠 것입니다.

제가 이 악령들을 육체가 없다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사와 권세는 타락한 천사들이므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성경적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권세자들의 힘과 줄을 끊어버림으로써 작은 악령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맹이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다. (사무엘상 17:50-51)

이 성경 구절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사와 작은 악령들에 대한 요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지도자 골리앗을 제압하고 죽였을 때, 블레셋 군대는 모두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죽는 것을 보자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할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도망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전쟁을 통해 악령들(즉, 정사와 권세)의 지휘관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 그들이 도망치게 한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니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129:4)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위해 덩을 숨기고, 줄을 매어 놓고, 길가에 그물을 치고, 나를 위해 방앗간을 설치해 놓았구나.
(시편 40:5)

악인은 자기 죄악의 결과로 자기 자신에게 닥칠 것이며, 자기 죄의 줄에 걸려 꼼짝 못 할 것이다. (잠언 5:22)

헛된 줄로 불의를 끌어당기며 수레줄로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이다 (이사야 5:18).

시편 기자, 솔로몬, 이사야가 언급한 이 끈, 그물, 그물망, 수레줄은 거미와 같은 생물들이 먹이로 삼는 작은 파리를 잡는 데 사용하는 거미줄 형태의 덫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영의 영역에서 이러한 권세와 세력들은 그 연결을 이용하여 희생자들을 정령 악령에 묶어두고, 그 과정을 통해 무력한 희생자들의 삶은 위로부터 지시를 받는 악령들에 의해 조종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이러한 악령들을 쫓아내려고 애쓰지만, 그 연결고리, 그물, 밧줄 등을 끊어내어 권세를 공격하지 않으면, 권세는 여전히 같은 연결고리 등을 이용하여 더 많은 악령들을 보내 활동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 어둠의 권세와 세력,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제가 앞서 언급한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이나 성령의 불을 사탄의 왕국, 이 어둠의 세력들의 보좌, 그리고 그들의 모든 활동 영역에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신음하며, 가라테 수련하듯이 허공에 손과 손가락을 치면서 그들과 싸우십시오. 그들의 줄, 그물, 밧줄, 포복줄, 그리고 모든 것을 끊어 버리십시오.

당신의 삶(영적, 육체적, 재정적, 물질적, 결혼 생활, 건강 등)과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해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는 작은 악령들을 묶어 무저갱에 던져 버리십시오. 또한 사탄의 하수인들이 당신이나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모든 악한 영들을 그들에게 되돌려 보내십시오. 이 기도는 매일, 특히 밤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죄악된 삶을 살고 있거나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런 영적 전쟁 기도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을 받은 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교 사역을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로 그의 말을 확증하셨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부르거나 묶으면 그 악령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귀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하는 방식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영을 묶으면 그 악령이 도망가거나 항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심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문제.

그때 떠돌이 유대인들 중 몇몇, 곧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악령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니라. 그리고 스게와는 유대인이었는데, 그의 아들 일곱 명이 있었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는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이르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덮쳐 이기니 그들이 옷도 입지 못하고 상처 입은 채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더라 (사도행전 19:13-16).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 회심하지 않았거나 주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묶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누구를 속이거나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주장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방하려 했던 것처럼, 누구도 함부로 모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사역지로 파송되기 전에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에 거쳤던 모든 과정은 마귀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기도하던 사람에게 있던 악령이 "예수님은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했다 때, 마귀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귀는 여러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개하지 않았거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런 삶을 살도록 조종하는 것은 그분의 악령들이며, 그 악령들은 언제나 그분께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랫동안 이러한 기도에 경험이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경고합니다.

9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 지금 해야 할 일

제 책 『그리스도의 경주: 끝까지 (보좌를 위한 자격)』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교회는 영적으로 여성이며,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그를 둘째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쫓을 씨(하나님의 말씀, 즉 남자 아이)를 낳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이며,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들입니다. 온 세상, 심지어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한 기독교계까지도 큰 배교의 길로 들어서는 이 불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성경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참된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마태 복음 5:13)

소금의 맛은 소금의 향을 말하며,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교회의 향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랑 안에서 행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머물면서 남편과 사랑을 나누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탐하게 되며,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간음하고 남편을 배신하려 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의 교회의 상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주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행할 것이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4:12)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느냐? (눅 18:8)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실을 다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네게 와서 네 등잔대(그분의 영)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릴 것이다. 네가 회개하지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4-5)

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배교의 시대가 도래하여 큰 죄악이 만연하게 될 때 대다수의 신자들이 믿음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속이려고 세상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믿는 자들의 거의 90%가 처음 사랑(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을 버리고 세상과 그 체제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 체제의 왕과 간음하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의 결혼 관계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 처음의 행실(사랑)을 다시 시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실 것입니다. 대다수의 믿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는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인내심 있게 기다릴 줄 모르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로 한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그들은 주님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마태복음 13:20-21 참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할 준비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빼앗을 수 없는 좋은 부분으로 받아들이신 마리아의 길이 아니라 마르다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가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기 위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 할 때에,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하여 벳엘로 갔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벳엘로 보내셨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고 당신의 생명이 살아 있는 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 그들이 벳엘로 내려갔다. 벳엘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머리에서 데려가실 것을 아느냐?"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니, 엘리야가 다시 이르되,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고 당신의 생명이 살아 있는 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머리에서 데려가실 것을 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여기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요단 강으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주께서 살아 계시고 당신의 생명이 살아 있는 한,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들 중 오십 명이 가서 멀리서 바라보았고, 엘리야와 그 둘은 요단 강가에 섰다. 엘리야는 걸음을 가져다가 잘게 엮어 강물을 쳤다.

강물이 갈라져 이리저리 갈라지니, 그 둘은 마른 땅 위로 건너갔다. 그들이 건너간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 줄지 구해 보아라." 엘리사가 말했다. "주님, 부디 제게 두 배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떠나갈 때 네가 나를 보면 그렇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계속 길을 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보십시오, 불 병거와 불 말들이 나타나 그들을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들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붙잡고 두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겹옷도 주워 들고 돌아가서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열왕기하 2:1-13)

엘리야와 엘리사는 주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엘리야는 휴거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엘리사와 선지자의 아들들에게 알려진 사실이었는 데,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엘리사보다 믿음이 더 깊었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에게는 이 사실이 숨겨진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이 일을 알고 있었으며 엘리사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기에, 다른 일에 한눈 팔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에게 예언을 전하던 예언자들의 아들들에게는 잠잠하라고 명령했다.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들의 아들들은 스승인 엘리야의 제자들이었는데, 엘리야는 세상을 떠나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자신이 돌보던 모든 지파들을 방문 중이었다.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하는 엘리사는 진영에서 떨어져 나와 시온에 있는 자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스승 엘리야의 휴거가 아니라, 엘리야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스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했던 것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사역을 마쳤을 때 자신도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지자의 자손들, 곧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과 같은 이들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엘리야의 기름부음을 받고 사역을 마칠 때 들림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엘리야가 들림받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파의 사역자들이 휴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앞서 불세례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 세례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는 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완전히 분리되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와 교제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 가운데 행했습니다. (제 책 『순종과 권위』 참조)

엘리사는 하나님의 통로이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이 행하실 일을 숨길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의 스승을 통해 엘리사를 요단강(영적으로는 육체 또는 죽음을 상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의 아들 50명이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때 엘리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겹옷으로 강물을 가르신 것입니다. 물이 갈라진 것은 상징적으로 죄인, 즉 아담의 육신을 가진 자들과 천상의 몸, 즉 영혼을 가진 자들의 분리, 또는 육신을 따라 견뎌 삶에서 영을 따라 걷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은 사탄과 세상의 욕망이 지배하는 육신의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행해지는 육신의 몸, 즉 영혼의 세계로 건너간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상징적으로 삶과 뼈로 표현됨)에 이르자마자 주님께서 엘리야를 감동시키셨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승천하기 전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이나 벳엘이나 여리고나 요단 강에서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땅에서 영의 땅으로 건너가 엘리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선지자의 아들이 그들을 방해할 수 없는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두 배의 은혜를 받으라는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엘리아의 기름 부음의 일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엘리사에게 이것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대한 과제였습니다. 즉,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잠도 자지 말고, 쉬지도 말고, 전도 집회나 선교 활동과 같은 어떤 종교 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갈에서 벳엘로, 벳엘에서 예리고로, 예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리고 요단에서 지금 있는 곳까지 엘리아를 따라간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밤낮으로 깨어 지켜서 그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느 때에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지 알았다면 깨어 지켜서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42-44)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언제 올지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13)

엘리아가 승천하는 순간에도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할 뻔한 방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승천하기 직전에 불 병거와 불 말들이 나타나 그들을 가르자, 엘리아는 스승을 보았습니다. 그는 엘리아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불 말들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 후 그는 자기 옷을 벗어 찢고, 엘리아에게서 떨어진 겹옷을 주워 들고 돌아갔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의 두 배를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엘리야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벗어 찢은 것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자신의 의를 벗어 버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며, 엘리야의 겹옷을 입은 것은 영생의 옷인 의의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처럼 구별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두 배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이와 같이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름 부음, 곧 불세례를 받고 성도들의 휴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들은 종교적이든 아니든 모든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첫사랑으로 돌아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능력을 줄 늦은 비, 즉 액체 불을 내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라. 진노가 그칠 때까지 잠시 숨어 있으라. 보라,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 그곳 주민들을 벌하시려 하신다.

땅의 악령들(육신에 거하는 악령들) 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드러내고 (육신이나 몸이 그의 뜻을 드러내고), 다시는 죽임을 당한 자들을 덮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26:20-21)

그 날에 주께서 크고 강한 칼 (하나님의 말씀) 로 꿰뚫는 뱀 레비아탄, 굽은 뱀 레비아탄을 벌하시고 바다 속의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그 포도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에 노래하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지키며 매 순간 물을 주어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밤낮으로 지키리라 (즉,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매 순간 그분의 말씀이나 진리를 주셔서 마귀가 공격할 때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이사야 27:1-3)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주시는 지시는 세상 제도에서 벗어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숨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령들을 물리치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큰 진노가 임하고 있으며, 모든 계획을 버리고 골방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을 사용하여 교만의 왕 레비아탄을 엄하게 물리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비아탄은 사람들을 대적하는 큰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맹렬히 거부하는 자들. 아무도 이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 강력한 영의 영향력으로 가득 찬 세상 체계에서 스스로를 분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례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 형제가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니, 어찌하여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베드로후서 3:11)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아직 그 언약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9:31)

이 책
이다
판매용이 아닙니다

저자 소개

이보족 부모님 밑에서 에누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존 다니엘은 1989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구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옮겨져 혈육이 아닌 사람들과 교류했던 것처럼, 저자인 존 다니엘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이지리아 에누구의 아크푸오가-에메네에 있는 광야 또는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농장 정착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주님께서 그의 육체를 불로 태우시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안에서 갈고닦으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의 훈련은 1992년에 끝났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교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전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 가정, 사역 단체, 개인 등을 방문하며 사역합니다.

그는 메리 블레싱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티모시 존(주니어), 벤자민 사무엘, 데이비드 조셉이라는 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